건강백세 ㊴

세균·외부충격·식중독등 맹장염 원인
하늘수박 이용한 민간요법 소염효과

큰 창자 - 맹장

대장은 소장에서 넘어온 음식물의 찌꺼기를 처리해주는 창자로 소장에 비해 굵기가 커서 대장으로 이름지어진 것 같다. 소장과 연결 되어진 부분은 맹장(盲腸)이라고 부르며 맹장을 지나서 상향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상행결장(上行結腸)이라고 부르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자 한다. 좁은 소장에서 직경이 갑자기 커진 대장에 들어서면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대장에서는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곳 맹장과 횡행결장에서는 역연동이 나타나며 속도를 조절해주게 된다. 맹장은 그 기능이 없다하여 맹장이라고 명명(命名)되었다는 속설도 있지만 해부학적으로 볼때 맹장 아래부분인 충수(蟲垂·벌레모양)가 마치 깊은 함정(陷穽)모양으로 들어가 있어 맹장이라고 불리게 됐다고도 한다.

맹장의 기능에 관해서는 한의학에서는 한열조절작용(寒熱調節作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외부의 온도에 따라 수분의 흡수정도를 조절하여 체온이 유지되게 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맹장의 역연동의 조절에 따라 결장으로의 통과속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또한 대장(大腸)을 폐(肺)와 표리(表裏)관계로 설명하는데 역시 폐의 호흡을 통한 수분조절로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다. 생태학적으로 볼때 집토끼에 비해 산토끼의 맹장이 훨씬 큰것을 보면 짐작 할 수 있다. 문명의 발달로 보온이 잘되게 된 이후로 한열조절기능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인간의 맹장 크기도 점차 퇴화되어 더욱 작아지고 그 역할 조차 무시하게 된 것같다. 여름철에 무리한 냉각으로 일어나는 맹장염의 증가라든지 맹장을 수술한 사람들이 학질이나 식중독 독감에 더 힘들어하는 예를 임상에서 볼 수 있다. 흔히 맹장염으로 알려진 이곳의 염증은 충수염(蟲垂炎)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벌레모양으로 생긴 충수는 혈관과 림프가 발달된 곳으로 염증이 생기면 통증과 발열을 일으키고 악화되면 오한과 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결국 화농(化膿)되어 터지게 되면 복막염(腹膜炎)이 되어 생명까지 위협하므로 터지기 전에 조치해야함은 물론이다. 예전에는 돌같은 이물질이 걸려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리한 물질, 식중독등 오염물에 의한 감염, 타박으로 인한 충격, 회충등 기생충 감염, 기타 세균감염으로도 발생한다. 급만성의 구별은 의학적 의미가 없으며 진행정도에 따라 조치속도에 차이는 들지언정 정확하게 치료해 주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소염(消炎) 배농(排膿)시키면서 열을 조절해주는 약재를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수술 일변도로만 치닫던 서양의학에서도 최근에는 항생요법(抗生療法)을 통한 국소 소염 및 대증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의학과 민간요법에서 많이 사용했던 하늘수박은 탁효를 갖는 소염항생효과를 내는 약재이다. 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 체질에 맞춰 전문 한방요법을 통해 충수염을 치료하는 경우도 많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새싹들에게 주는 약 ④·〈끝〉

"마음가다듬기·효심일깨우기 등 부처님 가르침 생활속에 펴다보니 '좋은약 선생' 별명 얻었어요"

하루는 법당에 앉아 "부처님 저 이제 학교에 사표 내고 부처님 전에 기도 정진만 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니야, 사표내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일이지. 해마다 새로운 많은 아이들과 학부형과 교사들을 만나면서 불심을 심어야지,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작은 기도야!"하시며 미소지으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부처님 은혜 갚는 일은 포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심어주는 일이야."

해마다 새 학년이 되어 담임을 하면 우선 생활기록부 종교란부터 봅니다. 불교를 믿는 아이들이 몇명이나 되나? 타 종교와 비교해 불교신자 수가 열세(?)라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의 불심 정도를 관심있게 살펴보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형들과 무교라고 적은 엄마들에게 여러가지 근기에 맞는 불경을 보시했습니다. 기도법을 일러주고, 수없이 가피받은 나의 신행담을 들려주고, 같이 절에 다니며 아이들은 어린이 법회에 인도해 주어 매주 절에서 만나곤 합니다. 제가 혹시 어쩌다 절에 못나가면 "선생님, 왜 절에 안 오셨어요?" 하며 이끌어주는 귀여운 도반들이기도 합니다.

작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제가 포교한 어린이들이 '화동', '동자승'으로 뽑혀 제등 행렬에 참가해 많은 불자들로 부터 귀여움을 독차지 했었습니다. 천진스럽고, 맑은 웃음 지으며 승복입은 동자승 '한비'가 너무나 거룩해 보였습니다. 87년부터 96년까지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에는 꼭 동참했습니다. 많은 불자들의 단합됨을 보이기 위해 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을 동참하게 했습니다. 모든 행사를 끝내고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제등행렬에 동참할수 있게 시간을 주셔서…"

1학년을 담임할 때면 첫 아이인 경우 동생을 볼 계획이 있는 젊은 엄마들에게는 큰스님들께 배운 '좋은 아이 만드는 법'과 태교법을 가르쳐 주고 태교책을 보시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낳아서 힘들게 기도하며 키우지 말고 정성껏 기도해서 낳아 나라에 큰 인물로 키우자고 지도했습니다.

물론 후배 젊은 교사들에게도 알려주고 실천하게 하여 낳은 아이들이 여러명입니다. 모두 잘 자라고 복된 불자들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면서 가끔씩 태만하지 않게 추스려 주기도 합니다.

친구와 학부모회 간부등 많은 타종교를 믿던 부형들을 절로 인도해서 기초 교리반 수료후 불교 대학을 졸업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모습들을 보며 오늘도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되뇌입니다.

그동안 스님들께 들었던 법문과 불교 방송을 들으며 메모해 두었던 법문들을 92년부터 아이들에게 맞게 '좋은약'이라는 이름으로 들려주어 인성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저를 '좋은약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5월에는 〈부모은중경〉을 자세하게 일러주며 효심을 가르치면 감정이 여린 아이들은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해요. 선생님, 엄마 보고 싶어요"하며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덩달아 따라 울어 교실이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일기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인을 받아 오게 했습니다. 그 일기를 통해서 부모님들까지도 간접 교육이 되면서 감사 편지를 보낸 학부형도 있었습니다. 자기도 몰랐던 것을 아이의 일기를 보고 배웠다고요. 94년에 6학년을 졸업한 아이들이 97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도 가끔 전화로 소식을 전합니다. 공부가 안될때는 '마음 가다듬기 운동'을 하고 선생님이 주신 비싼 '좋은약'의 가르침 대로 실천하고 생활해서 성적도 올랐고 안정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전화를 받았을때도 저는 또 합장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곧게 자란 나무처럼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자랄 것을 의심치 않으며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앞으로 더욱더 정성스럽게 전법, 정진하겠다는 각오로 우리나라의 불교 중흥과 정토건설을 기원합니다.

이 영 자
〈서울 강북구 수유 5동〉

그림 · 이준석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㊾

♦ The man who having penetrated the world, sees the highest truth, such a one, after crossing the stream and sea who has cut off all ties, is independent, free from passion, him indeed the wise style a Muni.

세상 이치에 막힘없이 통달하고 최고의 진리를 알는 사람,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고 의존하지 않으며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을 현자들은 성인으로 안다.

♦ Two whose mode of life and occupation are quite different, are not equal: a householder maintaining a wife, and an unselfish virtuous man. A householder is intent upon the destruction of other living creatures, being unrestrained; but a Muni always protects living creatures, being restrained.

출가자와 재가불자의 거처와 생활은 아주 다르다. 재가불자는 처자를 부양하지만, 이타적이며 덕이 있는 이(출가자)는 무엇을 보아도 내것이라는 집착이 없다. 재가불자는 남의 목숨을 해치고 절제하기 어렵지만 성인은 자제하고 항상 남의 목숨을 지켜준다.

♦ As the crested bird with the blue neck the peacock never attains the swiftness of the swan, even so a householder does not equal a Bhikkhu, a secluded Muni meditaiting in the wood.

벗을 세우고 목이 푸른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빨리 날아가는 백조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재가불자는 숲속에서 명상하며 은둔하는 성인이나 수행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penetrate (v) 꿰뚫어 보다, 간파하다, 통찰하다
*two는 재가자와 출가자를 지칭한다.
*householder (n) 재가불자
*occupation (n) 거주, 거처
*unselfish (a) 이타적인, 사리사욕이 없는
*virtuous (a) 덕 있는, 고결한
*intent (a) 여념없는, 열중하여
*secluded (a) 은둔한, 세상에서 격리된
*grest (n) 뱃
*swiftness (n) 신속, 빠름

오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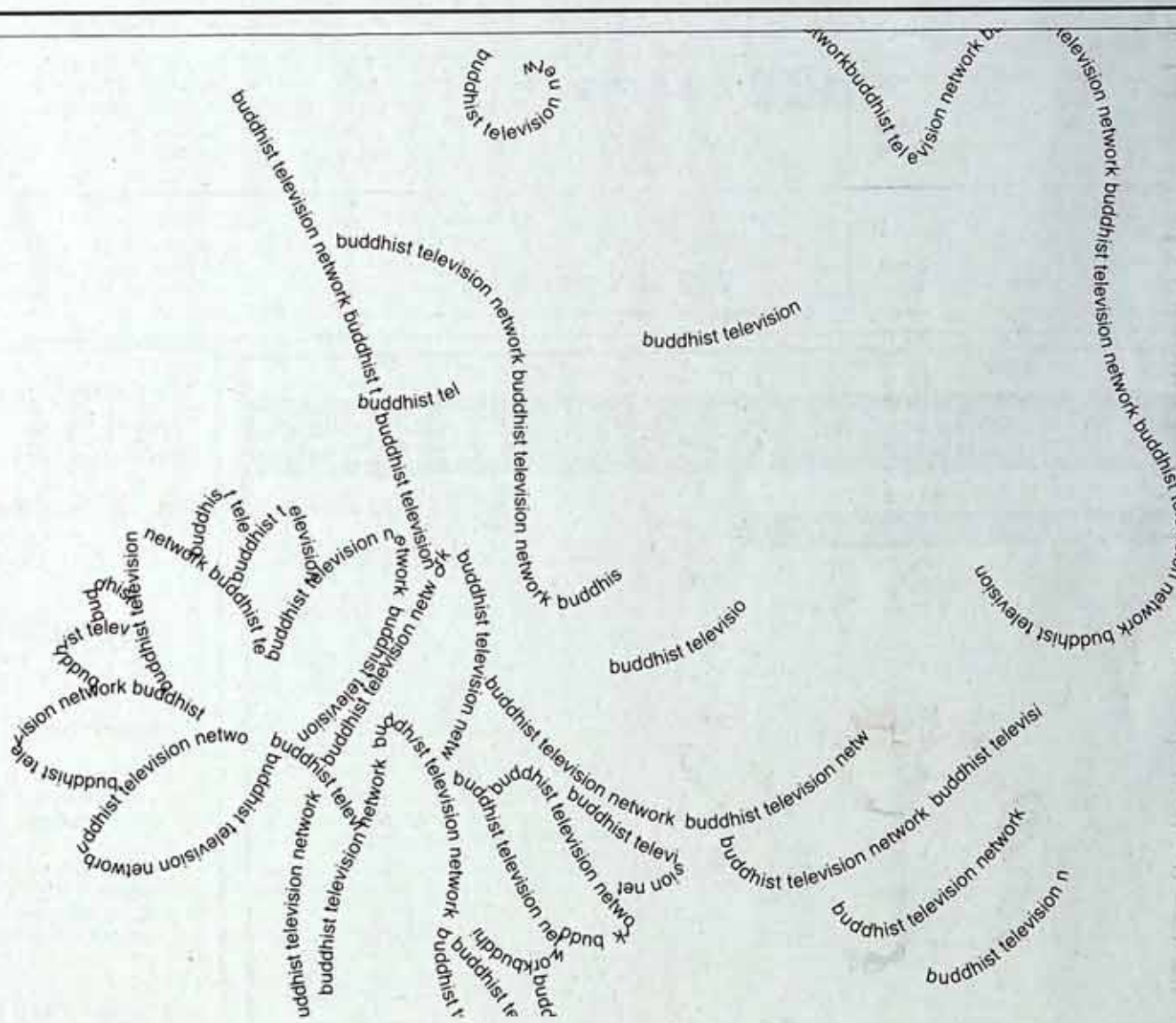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텔레비전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합시다

미래불교를 선도하는 불교텔레비전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자주식청약을 접수합니다. 불자 모두가 주인인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벽돌 한장 쌓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기 간 : 96. 11. 1 ~ 97. 2. 20
■ 청약방법 : 1구좌 10만원 이상, 지로용지를 이용 전국의 우체국 및 농·수·축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접수
■ 청약서 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각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분은 지로번호 7614677를 적어 넣으시고 성명과 전화번호 등 참액수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334-05-011307(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의 연결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케이블TV 설치 문의처
■ 서울지역 : 강남케이블TV 강남구 도곡-3000 | 강동케이블TV 강동구 4747-115 | 강서케이블TV 강서구 3663-1414 | 구로케이블TV 구로 금천구 830-8300 | 관악케이블TV 관악구 877-5000 | 노원케이블TV 노원구 934-3366 | 동대문연합방송 동대문구 215-0114 | 동작케이블TV 동작구 433-2121 | 동서울케이블TV 성동 광진구 499-6000 | 동작케이블TV 동작구 824-8080 | 마포케이블TV 마포구 717-1125 | 미래케이블TV 도봉 강북구 999-5555 | 북부케이블TV 성북구 942-0001 | 서울케이블TV 서대문구 365-6181 | 서초케이블TV 서초구 525-8952 | 송파케이블TV 송파구 318-2700 | 우리종합유선방송 광진구 418-3000 | 은평케이블TV 은평구 388-8000 | 중앙케이블네트 중로 중구 753-6781~3 | 한강케이블TV 영등포구 639-3200 | 한국통신케이블TV 양천구 645-2222 **부산지역** 금정케이블TV 금정구 315-6140 | 남해케이블TV 강서 사상 북구 326-9112~6 | 동남케이블TV 남 수영구 620-5000 | 범천케이블네트워크 부산진구 640-8586 | 부산케이블TV 동래 연제구 555-6300 | 서부산케이블TV 서 사하구 293-6300 | 유부산종합유선방송 유 동 영도구 412-0666 | 태창케이블TV 해운대구 746-1122 **대구지역** 금호케이블TV 북구 953-4000 | 동부케이블방송 동구 986-7777 | 대구케이블네트 중 남구 656-5555 | 서대구케이블TV 서구 567-6000 | 수성케이블방송 수성구 768-8888 | 푸른방송 달서구 631-2000 **인천지역** 남동케이블TV 남동구 422-4757~8 | 남구종합유선방송 연수 남구 876-0307 | 부천케이블TV 부평 계양구 551-8300 | 서인천케이블TV 서구 582-3211~4 | 서해종합유선방송 강 동구 761-9889 **광주지역** 광주케이블텔레비전 동 북구 512-4433 | 광주케이블TV 광산 서 남 광산구 370-5700 **대전지역** 대전케이블TV 대덕 동구 673-3333 | 한밭케이블TV 중 서 유성구 222-8350~1 **기타지역** 수원방송국 수원 257-4011~9 | (주)강원케이블TV 춘천시 후평 동 퍼전 동구로 242-2131~2 | 영주종합유선방송 영주시 영정리 271-3000 | 천안케이블TV 천안시 천안군 557-9981~8 | 전주케이블TV 전주시 완주군 250-6500 | 서남방송 목포시 산정 주안리 76-7777 | 강릉케이블TV 포항시 흥해 강릉리 251-7777 | 경남케이블TV 창원 진해시 41-6900~4 | 제주케이블TV 제주시 외제주군 41-7777